

“더는 못참겠다” 황금연휴 ‘보복소비’ 폭발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년비 매출 17% 증가... 명품·리빙 급등
광주신세계, 명품·아웃도어 10%↑... 화장품·핸드백은 하락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한 이번 주말부터 소비심리 살아날 듯”

4월말~5월초 최장 6일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품과 생활 장르를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올해 연휴 기간이 길었는데도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대신 이들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소비심리는 이번 주말부터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날 5일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해외 명품(패션) 매출은

? 보복소비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소비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져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났다.

59%, 가정(리빙) 상품은 58% 신장하며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외 화장품 37%, 스포츠류 22%, 아동 20%, 여성의류 3% 등 매출도 오름세를 보였다.
(주)광주신세계도 다소 풀린 소비심리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매장의 연휴 기간 매출은 지난해 대비 3% 신장했다. 명품(10%)과 아웃도어(10%), 골프(8%) 등은 전체 매출 증가율을 웃돌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화장품(-14%), 여성(-3.6%), 핸드백(-16%)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장거리 이동 자체 경향이 국내 소비로 몰리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다소 풀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연휴가 길어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신장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맥주·콜라 사면 얼음컵은 덤
이마트24, 5월 한달간 진행

황금연휴 끝... 이번엔 어버이날 특수 잡아라



6일 광주신세계 본관 8층 ‘템퍼’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이 어버이날 선물용 매트리스를 체험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한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에 나선다.
이마트24는 5월 한 달 간 ‘얼음컵 무료 증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펩시콜라(250ml) 등 음료 7종 또는 테라(355ml) 캔맥주 3권을 구매하면 얼음컵 1개를 덤으로 증정한다.
해당 음료는 펩시콜라(250ml), 비타500(250ml), 마운틴듀(250ml), 요거스콤·팻폼(340ml), 스무디킹 콤팩트 오리지널·파인애플 2종(315ml) 등이다.
이프레소 2종(아이스 아메리카노·아이스 드립커피), 바리스타 아메리카노 2종(케냐AA, 예가체프G2) 등 아이스커피 4종을 제휴카드(삼성카드)로 결제할 때도 얼음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1일 1얼음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마트24는 매장에서 3000원 이상 상품 구매 후 모바일 앱 스탬프 행사에 참여한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 매일 얼음컵을 증정한다. 담배·주류·서비스 상품은 제외된다.
이외 에이드파우치 전 상품을 NH농협카드 결제하면 20%를, 5월 음료 2+1 행사 상품 135품목을 KB국민카드 4000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유창식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팀장은 “5월은 얼음컵에 대한 수요가 4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시기”라며 “원활한 프로모션 진행을 위해 얼음컵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침구 15% 추가할인
광주롯데이류 최대 80% 할인

6일 간의 황금연휴로 숨통을 틔운 유통업계가 어버이날 수요 집기에 나서며 특수 분위기에 들어간다.
광주신세계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프리미엄 침구용품 15% 추가할인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에 있는 ‘템퍼’는 오리지널 엘리트 퀸사이즈 390만원, 싱글 사이즈 280만원 등 가격에 내놓았다. 전통 프레임과 세트 구매 시 오리지널 엘리트 퀸사이즈 침대는 780만원에 판매한다.
매트리스는 두께에 따라 가장 두꺼운 렉스와 엘리트·슈프림·프리마로 나뉘며

강도에 따라 오리지널·클라우드·센세이션·마이크로데크로 구분된다.
템퍼 매트리스는 척추와 관절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며 근육과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해 밤새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광주신세계는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7개 이마트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할인 행사를 5월로 앞당겼다.
김양호 광주점장은 “5월 무더위에 어버이날 선물로 에어컨을 장만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뜨뜻옹옹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제도와 제휴카드 할인·사은품 등을 챙기면 6-8월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50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은

여성 브랜드 ‘리브’ 스페셜 위크를 열며 의류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8-12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남약점 7-13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6-10일이다.
롯데백화점은 정상상품을 30% 할인하며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아울렛은 카디건·재킷 7만원, 원피스·쉬폰블라우스 9만원 등 균일가에 내놓는다. 또 행사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0% 추가 할인을 적용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한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상무·월드컵·수원·첨단점)는 오는 15일까지 한국화훼농협과 협업체선상품 카네이션과 호접란 등을 7000원~1만원대에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분 투자로 아이언세트가? 리믹스원정대 도전은 계속된다

20일간 골프채 무료 체험
설문 참여 시 사은품 증정도

“3분 투자로 165만원 짜리 골프채 체험하세요.”
아마하 골프는 지난 3월 시작한 ‘리믹스 원정대’ 이벤트가 당점자를 배출했다고 6일 밝혔다.
1등 당첨자는 김성동씨로 아마하 골프의 신제품인 ‘리믹스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을 20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게 됐다. 김씨는 “무상 렌탈도 이득이라 생각했는데 상품도 있어서 남는 것이 있을까 싶었다”며 “클럽을 빌려서 사용했을 뿐인데 1등에 당첨된 것이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믹스 원정대’ 추첨은 매달 진행된다. 1등 상품은 리믹스 아이언세트, 2등은 리믹스 드라이버, 3등은 리믹스 우드이며, 100명에게 돌아가는 4등 상품은 아마하 골프볼과 모자이다. 후기·설문

이벤트에 참여하면 할인구매와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마하 골프는 지난 2002년 골프 업계 최초로 1000여 개에 달하는 ‘시티채’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폴세트 렌탈’을 진행하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 스포츠산업기술센터(KIGOS)가 시행한 주요 드라이버 테스트에서 아마하 골프 리믹스 드라이버는 비거리 손실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MX 220 드라이버의 관성모멘트는 미국골프협회(USGA) 기준 5900g·cm에 가까운 5760g·cm이다. 이는 시중 판매 중인 주요 브랜드 드라이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아마하 측은 설명했다.
이동현 사장은 “한 달간 500명을 목표로 3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4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1000명 신청을 돌파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무상 렌탈과 할인 상품까지 챙겨가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믹스 원정대’ 신청은 아마하 골프 홈페이지(yamahagolf.co.kr)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소비 침체 어가 돕기’ 수산물 할인전

13일까지 이마트·롯데마트
우럭·장어 등 최대 43% 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7-13일 코로나 19로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어가를 위해 수산물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 기간 동안 우럭과 민물장어, 바닷장어, 멍게, 광어 물회 등 5가지 품목 총 28t을 기존 가격보다 최대 43%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
탕거리용 생우럭(280-350g) 1마리는 기존가 3490원에서 43% 가량 할인한 1980원에 판매한다.
손질 민물장어(100g)는 37% 가량 할인한 4980원에, 손질 바다장어(3마리)는 17% 할인한 9900원에 내놓는다.
손질 멍게(250g·봉)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한 5980원에 선보인다. 양념장과 채소를 동봉한 광어물회는 7980원에 판매한다. 해양수산개발원의 관측통계에 따르면 3월 멍게의 전국 출하량은 4358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 가량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산지 가격은 kg당 1741원으로 지난해보다 4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수산물을 최대 37%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마트에서는 특히 킹크랩과 대게가 저렴하게 판매된다.
국내 최대 크랩 공급사로부터 킹크랩과 대게 5t을 매입해 28% 할인된 가격에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또 최근 내수 부진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도마회도 37% 내린 가격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I

Classic I

Mediterranean Sea I